

# 중국 대학생의 사이버 문화와 애국주의 교육의 관련성

윤경우(국민대 국제학부)

## I. 서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우호 관계를 급속하게 발전시켜왔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대중문화는 매력적인 문화로 인식되었고, 급기야 한류 현상은 2005년 TV드라마 <대장금>이 중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절정에 올랐다.

그러나 <대장금> 열풍과 함께 중국인들의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저항과 반감도 점차 심화·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에서의 한류의 대한 저항은 한국 대중문화상품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자국의 문화산업시장을 지나치게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연예계 및 방송계의 종사자들에게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들의 압력을 받은 중국 공산당정부가 한류 문화상품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가하고, 관제언론들이 이에 호응하여 반한(反韓)의 논조를 띤 기사들을 앞 다투어 게재하면서 중국 대중들 사이에서 반한감정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sup>1)</sup>

초기에 발생한 반(反)한류 감정은 당시 중국 언론에서 ‘항(抗)한류’라고 표현했듯이 한류의 과도한 중국 시장 잠식을 경계하거나 거부하는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는 일련의 예기치 않은 사태들에 의해서 젊은 네티즌들에 의해 ‘반한(反韓)·‘혐한(嫌韓)’의 정서로 발전하였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첫 번째 계기는 한국이 ‘강릉단오제’를 2005년 5월에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하자, 단오가 원래 중국 고유의 명절인데 한국이 이를 강탈했다는 왜곡된 주장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면서부터이다.<sup>2)</sup> 이후 2006년 동북공정 파동 당시 중국 네티즌이 반한(反韓) 카페를 열고 한국을 비난하하기도 하였고,<sup>3)</sup> 2007년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의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는 피켓 세레모니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1) 윤경우(2006),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3호, pp. 41-71.

2) 한국의 강릉단오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사실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중국문화 침략으로 인식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창탈(搶奪)’, ‘자격(刺擊)’ ‘습격(襲擊)’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을 비난하였다.(<http://tieba.baiba.com>) 중국 창련완왕(創聯萬網)은 미화 3만 달러에 한국 업체로부터 한국에서 단오절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웹사이트 도메인을 사들이기도 하였다. 王丹(2005), “投資者3萬美圓從韓國買回‘端午節.cn’”, 『人民日報』, 11月 23日.

3)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度)의 ‘바이두티에빠(百度貼吧)’에 ‘까오쥬리빠(高句麗吧: <http://post.baidu.com/f?Kw=%B8%DF%BE%E4%C0%F6>, 현재는 폐쇄상태)’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고, 2006년 9월 13일까지 과격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담아 무려 2,750건의 주장과 2만9천3백29건의 댓글을 올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亞洲大統領(2006), “韓國網站上關與高句麗吧的報道”, 『百度貼吧』, 12月31日(<http://tieba.baidu.com/f?kz=159395496>, 검색일: 2010년 3월 21일)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해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이웃국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sup>4)</sup> 특히 2008년은 최악의 해였다. 4월 서울시내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의 중국 유학생 폭력 사건, 5월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악플 사건, 7월 SBS의 베이징 올림픽 리허설 장면 사전 유출 과문 등이 발생하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한정서가 증폭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직후 열린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 응원단은 한국 팀에 야유를 퍼부었다.

이후로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중 양국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걸리지 않은 악플을 쏟아내고 있으며, 양국의 인터넷 포털에는 확인되지 않은 왜곡·조작된 소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사이버공간은 집단적으로 민족주의 감정이 심하게 표출됨으로써 국가 간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쟁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양국의 정부, 언론, 지식인 등은 젊은이들의 반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네티즌들에게 자기성찰을 거친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양국 네티즌들 사이의 반감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수그러든 느낌을 준다. 그러나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 형성된 반감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면 아래 잠복해 있으며, 언제든 계기만 주어진다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인터넷 상에서 표출되고 있는 반한/반중감정이 각국의 미래를 이끌고 향후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조해내야 하는 젊은 네티즌들의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반한정서가 사이버공간의 논쟁거리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표출하고 있는 반한(反韓)민족주의 정서가 매우 우려할 수준으로까지 심화·확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의 TV드라마, 영화, 노래, 패션 등에 열광하며 ‘하한쭈(哈韓族)’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바로 그 젊은 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민족주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 및 이해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일반화할 수 있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 가장 활발하게 반한(反韓)사이버민족주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에 참여하는 중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양적연구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원인과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반한(反韓)사이버민족주의가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의적으

---

4) 중국 직속 통신사인 신화사에서 운영하는 <國際先驅導報>에서 실시한 “중국네티즌이웃국가인상조사(中國網民隣國印象調查)”에서 중국 네티즌의 40.1%가 한국을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국가로 평가하여 다음 순위의 일본(30.2%)을 크게 앞질렀으며, 한국을 좋아한다는 평가는 단 2.9%에 불과하였다. 未克(2007), “中國網民隣國印象調查: 近九成網民擔憂周邊安全”, 「中國網」, 12月12日,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07-12/12/content\\_9375516\\_2.htm](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07-12/12/content_9375516_2.htm), 검색일: 2007년 12월 17일)

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표본대상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사이버문화는 체제 성격상 공산당정부 이데올로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경제영역에서 시장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정치영역에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산당정부가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공백을 메우고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민족주의를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다.<sup>5)</sup>(Unger, 1996)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인식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이끌 차세대의 주역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주의(愛國主義) 교육의 강화로 나타났다. 1991년 4월 중국 국가교육위원회(國家教育委員會) 관공실(辦公室)이 <關於在中小學進一步發展愛國主義教育活動的意見>을 발표한 이후 중국 공산당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애국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바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세대이며 그들이 현재 중국의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정서를 확산·심화시키고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사이버공간에서 표출되고 있는 맹목적인 민족주의의 뿌리를 중국 공산당이 1990년대에 시작한 애국주의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민족주의 출현 배경의 상관성을 밝힐 것이다.

## 2. 중국에서 인터넷의 확산 현황과 사용자 특징

온라인 공간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중국의 전반적인 인터넷 확산 현황 및 네티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의 인터넷 확산은 초기부터 공산당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국 정부가 1993년 미국의 NII구상에 자극받아 통신 등 정보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중국식 정보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금자공정(金字工程: Golden Projects)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의 인터넷 활용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 1> 중국 네티즌 규모의 증가 추이(단위: 만 명)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년 1월.

5) Unger, Jonathan(1996), "Introduction", 『Chinese Nationalism』 New York: M.E. Sharpe, pp. i-xviii.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0년 5,910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12월 30일 현재 3.84억 명으로 증가하여,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인터넷 사용 인구 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같은 시기까지 28.9%에 불과하여,<sup>6)</sup> 아직까지 한국(77.3%), 일본(75.5%), 미국(75.1%)에 비해 비록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 네티즌의 규모는 미국 전체 인구 3.07억을 능가한다.<sup>7)</sup>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을 기점으로 중국 네티즌 규모의 증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인터넷 사용자는 작년 1년만 해도 무려 7천6백만 명이나 증가하였고, 2007년 이후 최근 3년 동안의 사용자 증가 규모는 2.47억 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13년에는 중국 전체 인구의 61%에 달하는 8.4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중국 인터넷 보급률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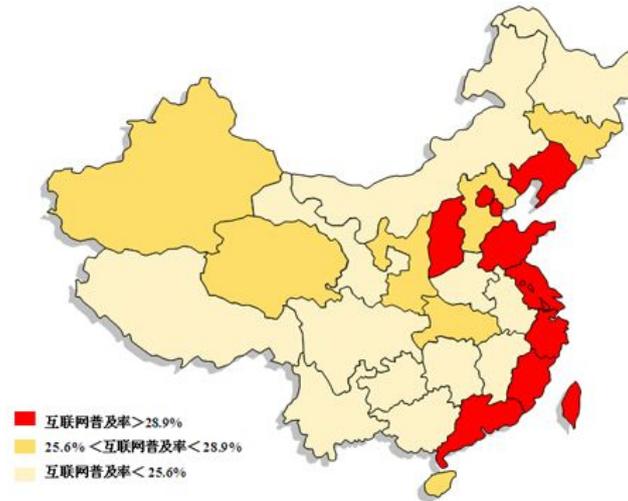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년 1월.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인터넷 사용자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북경(65.1%), 상해(62.0%), 광둥(50.9%), 천진(48.0%), 절강(47.9%), 복건(45.2%), 요녕(37.0%), 강소(36.0%), 산서(31.2%), 산둥(29.4%) 등 10개 성(省)과 직할시의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요녕(40.25%)과 산둥(39.6%)의 보급률 증가율이 높다. 요약하면 <그림 3>와 같이 주로 동부 연해지역과 대도시에서의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중국 인터넷 보급의 지역적 분포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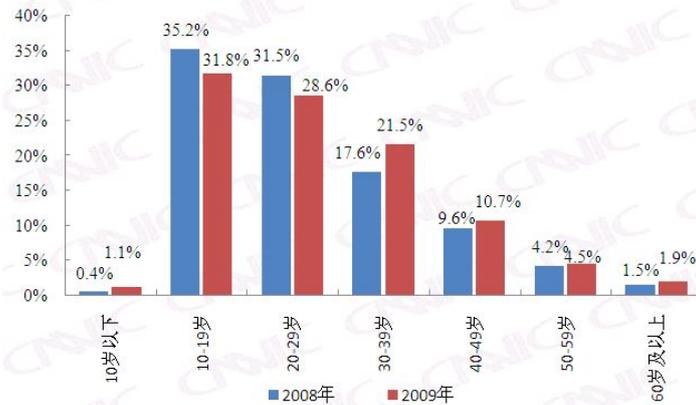
7) Internet World Stats: Usage and Population Statistics, "Asia Marketing Research, Internet Usage, Population Statistics and Information", Internet Coaching Library (<http://www.internetworldstats.com/asia.htm>, 검색일: 2010년 3월 21일)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年 1月.

인터넷 사용자의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성사용자가 전체의 54.2%, 여성사용자가 45.8%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상반기 남녀 성비가 74.68%:25.32%로 남성 네티즌이 총 인터넷 사용자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남성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10년 동안 여성 인구의 인터넷 사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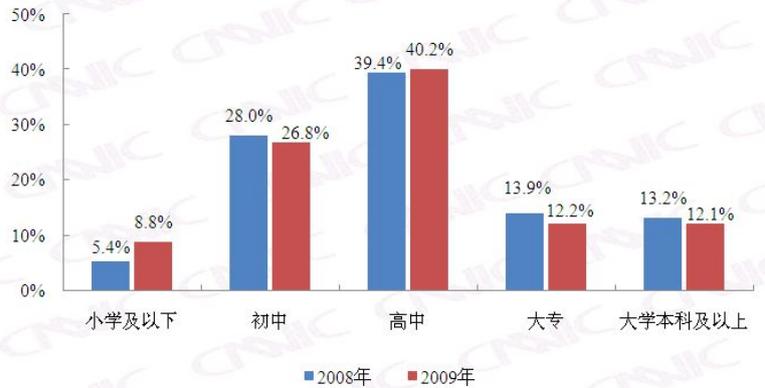
<그림 4> 중국 네티즌 연령 구조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年 1月.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위의 <그림 4>와 같이 전체 이용자 중 10-29세가 60.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30-39세 사이가 21.5%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 인터넷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대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었던 10년 전과 다르게 10대부터 30대까지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의 사용유무를 결정하는 요소들 가운데 연령이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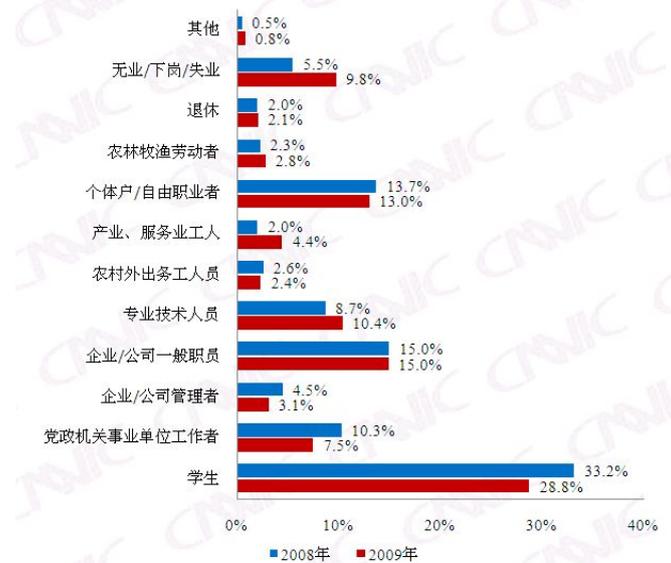
<그림 5> 중국 네티즌의 학력 수준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년 1월.

2009년에는 상반기에 석·박사를 포함한 대졸 이상 학력 소유자가 전체 사용자의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문대졸이 32.81, 고졸이 12.79%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춘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30일 현재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네티즌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도 전체 8.8%로 2008년보다 3.4%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학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이상 중국 네티즌들의 특징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님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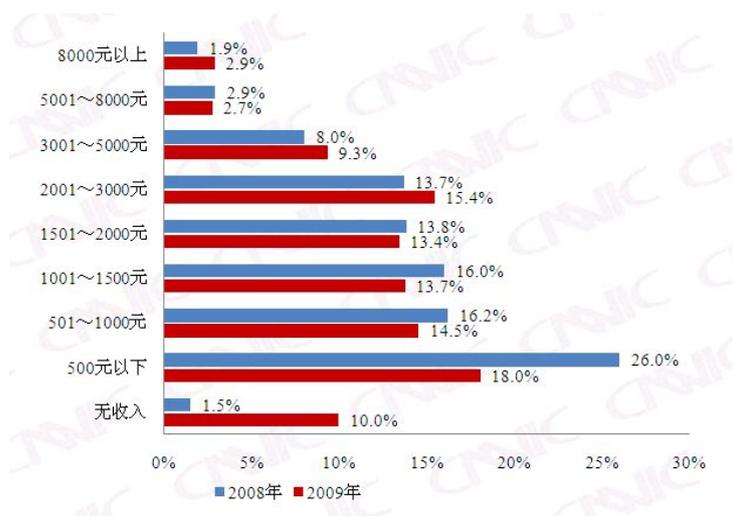
<그림 6> 중국 네티즌의 직업별 구조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년 1월.

인터넷 사용자의 직업별 비율을 보면 여전히 학생의 비율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학생 외의 다른 직종의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 회사원(15%), 개체호 및 자유직업인(13.0%)로 학생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 및 실업자들의 사용 비율도 9.8%로 증가하는 등 직업별 분포가 다양해져 그만큼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림 7> 중국 네티즌의 소득 수준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年 1月.

월 소득 수준면에서 보면 위의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의 인터넷 사용 실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9년 12월 30일 현재 농촌지역 네티즌은 1.0681억으로 1년 전보다 26.3% 증가하였으나, 전체 네티즌 인구 중에서 농촌의 비율(27.8%)은 여전히 도시(72.2%)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인터넷 사용이 불균형한 주요 이유는 농촌인구의 38.8%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며, 19.7%는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3.5%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8)</sup> 이는 정부가 가전하향(家電下鄉) 등 농촌의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컴퓨터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8> 도시와 농촌의 인터넷 사용

8)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年 1月, p. 20.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年 1月.

인터넷 접속 장소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직장, 학교 PC방, 공공도서관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2009년 12월 말 현재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83%에 달하고, PC방에서의 접속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직장에서의 접속 비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사용시간도 2008년 16.6%에 비해 2009년에는 18.7%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9> 인터넷 사용 장소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年 1月.

인터넷 서비스 이용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2009년 12월 30일 현재 중국 네티즌들이 주로 정보취득(76.7%), 오락(71.7%), 상호소통(49.0%)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 음악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네티즌들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순위에는 뉴스검색, 자료검색, 메일방송, 채팅 등이 상위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 이용의 성격 쪽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도 2008년에 비해 41.5%나 증가하여 중국의 게임 산업이 놀라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중국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

类型	应用	2008年使用率	2009年使用率	用户增长率	使用率排名	增长率排名
网络娱乐	网络音乐	83.7%	83.5%	28.8%	1	11
信息获取	网络新闻	78.5%	80.1%	31.5%	2	9
信息获取	搜索引擎	68.0%	73.3%	38.6%	3	7
交流沟通	即时通信	75.3%	70.9%	21.6%	4	13
网络娱乐	网络游戏	62.8%	68.9%	41.5%	5	6
网络娱乐	网络视频	67.7%	62.6%	19.0%	6	14
交流沟通	博客应用	54.3%	57.7%	36.7%	7	8
交流沟通	电子邮件	56.8%	56.8%	29.0%	8	10
交流沟通	社交网站	--	45.8%	--	9	--
网络娱乐	网络文学	--	42.3%	--	10	--
交流沟通	论坛/BBS	30.7%	30.5%	28.6%	11	12
商务交易	网络购物	24.8%	28.1%	45.9%	12	5
商务交易	网上银行	19.3%	24.5%	62.3%	13	4
商务交易	网上支付	17.6%	24.5%	80.9%	14	1
商务交易	网络炒股	11.4%	14.8%	67.0%	15	3
商务交易	旅行预订	5.6%	7.9%	77.9%	16	2

출처: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第25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0年 1月.

중국 네티즌들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순위에는 뉴스검색과 자료검색이 여전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률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73.3%로 전년에 비해 5.3%까지 증가하였고, 검색엔진 사용자의 규모는 2.8억 명에 달하며 사용자 증가율도 38.6%에 이르렀다. 그에 반하여 각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포럼 참여 비율은 0.2% 감소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네티즌들의 인터넷 포럼에의 댓글을 다는 일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상거래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저조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중국의 불편한 인터넷 결제시스템과 저조한 안전의 문제 때문이지만, 최근 해외의 앞선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된 후 갈수록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인터넷 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 활동 증가 비율이 위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서비스를 제치고 상위 5위까지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 네티즌들은 (1) 지역적으로 광역으로 구분할 때는 동부 연해지역과 대도시 그리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할 때는 도시에 거주하고, (2) 연령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고, (3) 학력 수준으로 보면 초중고 졸업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4) 소득수준으로 보면 중산층에 해당하며, (5)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정보취득, 오락, 상호소통의 활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네티즌의 이러한 성격적 특징을 전제하고, 아래에서는 대학생 개인이 온라인 공간을 의견 표출 및 대중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본다.

### 3. 사이버공간에서 중국 대학생들의 행위양식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우리들 삶의 일상이 됨에 따라, 사회 환경은 예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터넷이 중국인들의 일상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가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생활의 편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부작용들도 양산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결과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문화는 개개 행위자들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파생하는 복잡한 관계구조 속에서 형성되므로 인터넷이라는 환경의 질적 수준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특정한 경향을 띠는 문화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한다. 즉 행위자들의 주체적인 선택과 활동이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사이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여 사이버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파악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어떤 특정한 부류와 서비스에 선호도가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네티즌들이 중국 사이버 영역의 논조, 성향, 그리고 정서를 결정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인 북경과 상해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대학생 네티즌 행위자 사이의 관계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사이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들이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하나이면서, 빠링허우(80後), 지우링허우(90後) 등으로 불리면서 사이버공간을 생활의 일부로 향유하면서 자라온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여론은 초중고생들과 대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생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과정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그러한 요소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북경과 상해를 선택한 이유는 앞에서 검토했듯이 경제가 발전한 동부 연해지역과 미개척 서부지역의 인터넷 격차는 물론이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경과 상해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설문조사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1월 3일까지 북경과 상해에서 각각 20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별로 중점(重點), 비중점(非重點), 사립(私立)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대학별로 표집된 인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 400명의 표집된 인원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219명과 181명이고, 연령은 18세부터 3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학생은 98명이다.

#### <표 2> 대학별 표집 분포

城市	大学类型	学校名称	样本分布	總样本量
北京	重点	北京大学	33	100
		清华大学	34	
		中国人民大学	33	
	非重点	北京建筑工程学院	20	60
		北京第二外国语学院	20	
		首都师范大学	20	
	民办	北京城市学院	20	40
北京培黎职业学院		20		
上海	重点	上海交通大学	33	100
		上海复旦大学	34	
		华东师范大学	33	
	非重点	上海第二工业大学	20	60
		上海工程技术大学	20	
		上海电力学院	20	
	民办	上海震旦职业学院	20	40
		上海建桥学院	20	

비록 중국의 사이버공간이 공산당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의 관계 언론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거의 유일하게 중국 네티즌들의 감정표현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동료 집단들과 연대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나 지식, 가치관을 교환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고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이버 행위자들의 그러한 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형성하는 집단적인 유대와 연대가 자국 중심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서의 표출, 즉 외부를 향한 맹목적인 민족주의 행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과열된 민족주의적 인터넷 댓글 공방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현재의 중국 대학생들의 편협하고 맹목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의 뿌리는 중국 공산당정부가 현재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퇴조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권차원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한 애국주의교육(愛國主義教育)에서 비롯되었다. 중국공산당이 1990년에 방침을 정한 뒤, 1991년 4월 중국 국가교육위원회(國家教育委員會) 판공실(辦公室)이 <關於在中小學進一步發展愛國主義教育活動的意見>을 발표한 이후부터 중국 공산당정부는 애국주의 선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8월 23일에 중공중앙(中共中央)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의 입안에 의해 <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이하 綱要)>이 제정되면서 중국에서 애국주의교육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당국은 1995년 5월부터 전국에 걸쳐 애국주의교육기지(愛國主義教育基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공산당 선전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國共產主義青年團) 문화부(文化部),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등을 모두 동원해 전면적인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해왔다.

결국 중국 공산당 정부가 주도하고 견인한 정책의 전면적 실시가 그렇지 않아도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계속해온 중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성장하여 국가적 자부심이 어느 세대보다 강한 빠링허우(80後)와 지우링허우(90後) 세대의 애국주의교육의 바탕이 된 것이다. 공산당정부의 일방적인 애국주의교육의 결과는 이들 세대들의 협애한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15일까지 신화통신 웹사이트가 중국 네티즌 12만 여명을 상대로 한 사회가치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민족이익지상주의(民族利益至上主義)’에 동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중국 네티즌의 95.9%와 94.0%가 “군사력을 키우고 민족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와 “중화민족이 다른 민족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 민족이익을 지켜야 한다.”는데 각각 동의했다. 응답자의 81.42%(18-25세: 48.01%, 26-35세: 33.41%)가 젊은층이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大專: 29.17%, 本科: 40.59%, 碩士級以上: 19.84%)이 80.2%이며, 공산당원이 29.2%로, 이들이 모두 향후 중국을 이끌 세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9)</sup>

2009년 5·4운동 90주년 기념을 앞두고 <인민논단(人民論壇)>이 온라인상에서 1만2천여 명의 대학생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0.2%가 5·4운동의 정신을 민주정신(23.4%), 과학정신(20.8%), 혁신정신(15.6%)이라기보다는 ‘애국주의’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의 75.4%가 중국 공민임에서 오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sup>10)</sup>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1월 3일까지 북경과 상해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에서 애국주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이 70.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에서 일관적으로 중국 대학생들이 매우 강한 애국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표출되는 민족주의 담론은 네티즌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증폭되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단 한 번의 문제제기가 수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특히 민족주의 성격을 담은 논쟁의 경우 이슈의 특성상 응집과 확산의 속도가 그 어떤 논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인터넷의 뉴스포털사이트, 포럼사이트, 블로그 등의 게시판에는 주로 사건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주장과 댓글을 통한 민족주의 정서의 폭발과 이에 따른 갈등 양상이 진행되어 왔고, 중국 네티즌들의 경우 계층적 동질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네티즌들보다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훨씬 더 많은 민족주의적 편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공간은 누구의 의견이든 민주적으로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갈등이 신중한 숙의(deliberation)없이 양산되어 갈등이 너무나 쉽게 증폭되고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경우 온라인공간은 공산당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오프라인공간의 대안 공간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년세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의 온라인공간은 오프라인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긴 해도 여전히 통제된 공간이다. 온라인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중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정부의 온라인매체의 대중 통제와 관리 능력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일반의 기대와 달리 국가의 정치권력을 강화시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왜곡된 민족주의가 쉽게 폭발하고 확산되

9) “當前人民群眾思想狀況調查問卷投票結果”, 「新華網」, 2006年 8月19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diaocha.htm>, 검색일: 2006년 9월 20일)

10) “調查: 大學生愛國主義情懷濃厚對中國未來有信心”, 「搜狐新聞」, 2009年 5月 4日 (<http://news.sohu.com/20090504/n263753953.shtml>, 검색일: 2010년 3월 24일)

는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산당이 영토주권 및 국익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 반정부·반체제적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은 반면에, 민족주의가 강화될 여지는 매우 크다. 실제로 중국의 사이버공간은 국가적 문제나 대외관계와 결부되는 사건이나 문제를 대하게 되면 애국주의적 반응들이 결집되는 민족적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그러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하여 네티즌들이 민족주의적으로 반응하면 중국 정부는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관 또는 묵인하고, 체제 순응적인 특성이 여전히 강한 네티즌들은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체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적 정서 표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자제력을 발휘해왔다.<sup>11)</sup>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의 뉴스 포털사이트, 포럼사이트 등에 나타난 뉴스나 주장에 대한 댓글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애국주의교육이 네티즌들의 댓글 행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진행되는 댓글 행위를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인터넷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의 민족주의 주장의 공방이 댓글을 통해 점화되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표 3> 중국 대학생의 주당 평균 댓글 논쟁 참여 (단위: %)

	전혀	1-2번	3-5번	6-10번	10번 이상
댓글 읽기	6.3	20.3	23.0	27.0	23.8
댓글 달기	17.3	27.3	22.5	18.8	14.5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위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상 외로 중국 대학생들의 온라인 댓글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의외의 결과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시한 선행연구의 결과, 인터넷 이용자들 중 댓글 논쟁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etnews전자신문의 K리서치가 2008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 거주하는 20-54세 일반 인터넷 사용자 1,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개국 모두 댓글에 참여하는 정도가 2-3%에 불과했다.<sup>12)</sup>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댓글을 평소 전혀 읽지 않는 대학생 네티즌들이 6.3%에 불과한데, 17.3%가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표 4> 중국 대학생의 댓글 논쟁 참여 변수의 분산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확률
19.683	4	395	.000

<표 5> 중국 대학생의 댓글 논쟁 참여 변수의 분산분석

11) 이러한 공산당정부와 인터넷 공중 사이의 '타협(compromise)'은 '정략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Nina Hachigian(2001), "China's Cyberstrategy", 『Foreign Affairs』, Vol. 80, No. 2, pp. 118-133.

12) "인터넷을 말한다: 한·중·일 네티즌 성향조사", 『etnews전자신문』, 2008년 10월 13일,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0100165>, 검색일: 2010년 3월 24일)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집단 간	233.934	4	58.484	63.551	.000
집단 내	365.506	395	.920		
합계	597.440	399			

<표 4>와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표본검정과 분산분석의 과정을 거쳐 확인한 결과, 표집이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Levene 통계량은 분산분석을 하기 위해서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고 모집단이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확인시켜주는 통계량이다. Levene 통계치가 19.683으로 턱없이 크며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도 없고 시간 관계상 다른 연구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etnews전자신문의 K리서치가 온라인신문에 밝힌 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필자가 이전에 실시한 중국 사이버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여러 편의 질적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간접적인 분석을 통해 마무리하고자 한다.

K리서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국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중 게시글을 읽고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87%를 차지”했고, 4국 모두 “타인의 글을 읽기만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4국 모두 논쟁에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2-3% 수준으로 극히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여론주도라는 문제가 오프라인 매체에서보다 인터넷 매체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공간에 주장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고 그러한 내용의 글들을 퍼 나르며 외부 세계를 향해 협애(狹隘)한 민족주의 정서를 분출하는 젊은 네티즌들을 중국에서 흔히 ‘편칭(憤靑)’이라고 부른다. ‘분노하는 젊은이’라는 뜻의 ‘편칭(憤靑)’은 중국의 온라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고, 대도시에서 생활하며, 자발적 동기부여가 강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로 구성된 사이버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외래적인 요소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편칭(憤靑)은 대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게 외국의 압력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일 때도 있다. 사이버공간은 이들의 감정적인 표현의 유통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동료집단들과 연대를 용이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3)</sup> 그리고 주로 이들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족주의는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담론의 재생산이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비슷한 반응으로 되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 의해 과도하게 극단적인 견해가 지배적일 때는 ‘집단극화(group polarlization)’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up>14)</sup>

13) 윤경우(2007), “중국의 반한류와 사이버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World Congress for Korean Studies’ 발표논문집; 윤경우(2007), “중국의 사이버 공론영역과 사이버민족주의”, 국민대학교 친디아우수연구센터 학술회의 ‘친디아와 동북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논문집.

14) Patricia Wallace(1999), The Psychology of the Intern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중국의 사이버공간은 공산당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같은 이슈에 대해 주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편칭(憤靑)과 같은 소수가 여론을 주도하고 대다수는 침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모두 같은 의견이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 때, 설사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군가 이에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소리에 주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발견하기 어렵다. 소극적인 참여자들은 다수의 의견에 그대로 편승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소통이 기대되는 사이버공간에서 특정한 지향성을 가진 소수의 시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민족주의적 정서를 담은 시각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와 인터넷 대중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사이버공간은 향후에도 다양한 견해가 공개적인 토론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되거나 정교해지는 바람직한 형태의 공론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현실의 공간에서 보다 더 희박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사이버공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스스로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행위자들 사이의 활동 격차를 축소하고 사이버공간의 자정기능을 확대하며, 사회는 그 공간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여론에도 주목하고 흡수할 수 있을 때 인터넷의 순기능이 가능하다.

물론 국가가 어떻게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곳에 조성되는 여론의 형상도 달라진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을 통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불가피하게 적극적인 애국주의교육을 통하여 중화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애국주의교육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한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자국의 외부를 향해 표출하는 맹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장치가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이들 젊은 세대들의 민족주의 행태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나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사회를 이끌어갈 이들의 사고가 애국주의교육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고정될 경우 향후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가 없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네티즌들의 파워와 폭발적인 잠재력을 감안할 때, 그들이 표적을 내부로 돌릴 경우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에 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중국 사이버공간에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인터넷 공간에 산재해 있던 반한(反韓)정서를 포함하여 외국에 대한 반감을 담은 내용의 글들이 대부분 삭제되었고, 설사 남아있더라도 단순한 키워드 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체제의 속성상 타국을 의식한 중국 정부가 사이버공간 내의 민족주의를 관리하고 수위를 조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의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일은 권위주의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더 쉬울 수도 있다. 중국 정부나 지도자들은 더 이상 공산당의 집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데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중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왜곡된 애국주의교육 운동을 자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의 아니게 논문의 내용이 제목과 다소 합치되지 못한 점을 토론자와 학술회 참여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변명을 하자면 본 논문의 논의 구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인 ‘댓글’ 관련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미리 서둘러 분석을 시도했다라면 대안을 찾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sup>15)</sup>

---

15) 애국주의 교육이 중국 대학생들의 민족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번 학술대회 발표논문집과 수정·보완되어 발표될 후속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윤경우(2009),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민족주의”,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국내학술대회 ‘중국의 사회변화와 대학문화’ 발표논문집.